

전주시,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나선다

취업 준비 청년에 응시료 실비 최대 10만원 지원

전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오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선 8기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어학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1985~2006년생) 중 시험 응시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보유자는 제외되며,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응시한 19종의 어학시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주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전주청정지대(youth.jon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 △어학시험 응시확인서 △어학시험 결재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9월 초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025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한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위치 확인하세요”

분리배출 문화 정착 위해 위치 정보 공개

전주시가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위치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시청 누리집(jonju.go.kr) 내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생활테마맵맵을 활용하면 34개 동에 위치한 463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위치를 파

악하지 못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분리수거대의 주소와 GPS 좌표를 정밀조사했다.

정밀 조사와 실제 분리수거대 위치 사이에 오류를 없애기 위해 시청 청소지원과 직원들이 분리수거대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했다.

앞으로 시청 홈페이지 내 생활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거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리배출 실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분리수거함을 조사하며 분리배출 홍보 현수막도 수거대에 부착하여 분리배출 4원칙(불기 제거, 내용물 비우기, 이물질 제거, 분리포장)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환경보

존·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소재 수집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임직원 가족 대상 힐링 쿠킹클래스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공단은 임직원 가족 28팀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힐링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완산구 전통 공예제과 본점에서 수제 초코파이를 만들며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정서적 힐링과 가족 유대감 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단단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힐링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사)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에서 '완주전주 통합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군민 홍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완주·전주 통합홍보단 출범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 대군민 홍보 활동 본격화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 그리고 1조5000억원 이상이 완주지역에 오토이 투입될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완주군민에게 알릴 통합홍보단이 출범했다.

(사)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 마완식)는 지난 1일 오후 완주군 용진읍에서 '완주전주 통합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군민 홍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출범한 통합홍보단에는 역사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13개 읍면 주민, 완주거주 청년 등 350여 명이 동참기로 했다.

발대식에서는 완주와 전주의 역사적 연결성과 통합의 당위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출범한 홍보단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의 역사적·사회적 필요성과 함께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대면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완주군 내 13개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특히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교통관리공단 설립, 대형 상업시설 유치, 심야·급행버스 신설 운영, 완주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완주 지역에 오토이 지원될 105개 상생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13개 읍면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나유인 대표는 "완주와 전주는 오랜 세월 하나의 생활공동체였으며,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폭염 속 시민 안전 확보 위해 시내버스 안전점검

전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와 CNG 등 고압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일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비전대, 시내버스 운수사가 함께 체결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 협약(MOU)'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수소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일·분기·정기·특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시내버스 412대 중 고압 연료를 사용하는 384대(약 93%)로 차량으로 수소버스 178대(43%)와 CNG버스 206대(50%)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운수사와 함께 현대자동차, 한

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해 배관기밀, 스택 이상, 누기, 전기시스템 결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유관기관은 이미 지난 6월 수소버스 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7월에는 운수사 정비직을 대상으로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시내버스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마련한 점검 매뉴얼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중 정비직 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이후 정비 및 보수 등 발빠른 후속 조치와 함께 운수사별 일일 점검을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등 시내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